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3월

“객관적이고 질 높은 연구로 연구원 위상 높여야”

개원 28주년 기념식 3월 31일 대회의실에서 가져



우리 연구원은 개원 28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이룬 성과를 나누며 도약 의지를 다졌다.

우리 연구원은 3월 31일 개원 28주년을 맞아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농업·농촌발전 방안 제시에 최선을”

기념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연구원이 이렇게 성장한 것은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문을 열어 “이번 개원기념행사는 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장은 “우리에게 닥친 FTA, DDA 협상 전략 수립과 향후 우리 농업, 농촌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할 때 우리의 위상은 한층 올라 갈 것”이라고 말하며 가일층 분발해 주길 당부했다. (기념사 3면 게재)

이어 6대 원장을 지낸 정영일 前원장이 ‘한국 농업·농촌 혁신의 과제와 KREI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정 前원장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제 몫을 다한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향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나아갈 방향과 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요지 4월호에 게재)

개원 28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직원 포상과 연구과제 포상도 있었다. 20년 근속 포상은 이재욱·김철호 선임연구위원, 허덕·성명환·박석두 연구위원, 박문호·김철민 부연구위원이 받았고, 10년 근속 포상은 이규천·박헌태·이용선·임송수 연구위원, 유규종 선임관리원, 조태희·김경필 부연구위원, 김병철 1급관리원이 받았다.

장기근속, 우수과제 등 포상

최우수과제상은 이계임·최지현 연구위원, 김민정 연구원이 연구한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우수과제상은 ‘남북 공동 시범영농단지 조성발 전 방향 연구’(김영훈 연구위원), ‘지역농업클러스터 발전방안’(김정호 선임연구위원), ‘쌀 생산조정제 평가 및 개편방안’(김명환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받았다. 공로과제상은 ‘세계농업연구’(김태곤 연구위원), ‘성공적인 농업 CEO의 경영전략’(김영생 전문연구위원), ‘2005년 임업관측사업(밤)’(장철수 연구위원), ‘투융자 관리계획서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용택 연구위원), 베스트 셀러상은 ‘버섯산업의 현황과 과제’(강창용 연구위원)가 각각 수상했다.

KREI 공로패는 농촌 신활력사업에 기여한 정명채 선임연구위원과 ‘농촌경제지’가 학술지로 등재되는데 공을 세운 이재욱 선임연구위원, 김명환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부연구위원, 지성구씨가 받았다. 그리고 효행상에 정한모·임성진 연구위원이, 봉사상은 김태영 연구위원이 수상했다. 또한 김동원 부연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

네이버와 정보 공유 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은 3월 28일 네이버(NHN(주))와 콘텐츠 제휴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우리 연구원은 발간자료정보와 원문링크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네이버에 제공하며, 네이버는 자사의 검색서비스를 통해 연구원 각종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네이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구원 관련 기본정보 및 각종 홈페이지 메뉴가 직접 링크되어 네이버 사용고객과 농업관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연구원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현실적인 해법 모색과 개선 필요”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 3월 2일 가저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을 3월 2일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3월 2일 대회의실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 임승빈 교수 사회로 워크숍이 열려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대표가 ‘농촌마을종합개발 공동사업의 법인 경영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경수 연구원이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평가 지표 개발’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우리 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송 연구위원은 “향후 농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2015년에는 농촌인구가 22.7%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도시민의 농촌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고(41.9%), 그 다음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17.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강원대 김경량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김정연 연구실장, 우리 연구원 김정호 농업구조연구센터장, 박시현 농촌발전연구센터장, 목포대 박종철 교수,

협성대 윤원근 교수, 농림부 조원량 농촌진흥과장, 한국농촌공사 주경로 농촌종합계획처장, 엑토건축 주대관 대표 등이 종합토론을 했다.

종합토론

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 법인 도입은 필요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평가 지표 개발에 있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평가지표를 단순화 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 평가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워크숍을 마치고 농촌마을가꾸기 포럼 창립총회를 가져 회장에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를 추대하였다.

원장, 연구기관장 회의 참석차 訪中

최정섭 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06 한·중 연구기관장회의’ 참석하기 위해 3월 22일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했다.

그리고 세차례 걸쳐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농촌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3월 17일은 농협대학에서 경영대학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업대의통상 현안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3월 29일은 순천대에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와 정책과제’란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WTO 협상 관련 연구총서 발간

우리 연구원은 최근 ‘WTO 농업협상의 전개과정의 평가’라는 제목의 연구총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연구총서는 이재욱 선임연구위원이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농업협상의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총 5장으로 나눠 저술해 일반인들이 다자간 농업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농업협상의 효율적인 추진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관측 정보화의 현황과 발전 방향’ 농경토론회 개최



농업관측 정보화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농경토론회를 3월 13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3월 13일 중회의실에서 ‘농업관측 정보화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농경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한 이용선 연구위원은 농업관측 정보화의 목적을 “다양한 조사방식 제공과 조사효율성 향상, 각종 데이터의 체계적 저장과 관리, 그래프(OLAP)와 지도(GIS)에 의한 직관적 정보 제공으

로 관측정보의 활용성 제고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구축된 웹조사시스템(DB)과 농업관측통계정보시스템(OASIS) 구축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농업관측정보화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 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원지연 연구조원이 그동안 구축된 시스템의 구조와 사용법에 대한 시연을 함으로써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농업관측 및 통계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자부심 갖고 신명 나게 일하자

최 정 섭 원장

지난 28년 동안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한 것은 모든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원기념식, 감사하는 자리 되어야

오늘의 행사는 현직에 있는 저희 모두가 기념하는 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원장님들을 비롯 연구원 발전에 도움을 주신 퇴직 임직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연구원을 위해 협력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정부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8년 동안 우리 연구원은 양과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1978년 본원만으로 출발한 연구원이 1995년 농림기술관리센터, 1999년에 농업관측센터, 2005년에 농촌정보문화센터가 설치되었고, 연구원 시설과 환경도 크게 확충·개선되었습니다. 예산규모도 개원때에 비해 크게 늘었고, 식구들도 배 이상 늘었습니다.

설립 이래 우리 연구원은 꾸준히 발전하여, 연구보고서 지령 500호를 돌파하고 계간지 『농촌경제』가 학술지로 등재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지식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속에 우리 농촌이 성장의 그늘에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희생의 계기를 만들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과 농업관련 기관, 외부의 학계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습니다. 지방이전이 되더라도 근무여건이 현재보다 나아져야 하며, 특히 우수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현안은 한-미 FTA를 비롯해 앞으로 확대될 FTA, 그리고 DDA 협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 FTA와 DDA 농업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제교역 및 생산유통의 변화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개방이 확대될 경우 이득을 보는 분야와 피해를 입는 분야가 분명하게 생길 것입니다. 이득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입는 분야로 소득이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상체계 확립에 우리 연구원이 심층 연구를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논리적 연구 결과 제시해야

우리 연구원은 사회적인 시험대 위에서 있다고 봅니다. 국책연구원으로서 정부의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와 농민 생활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하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면 우리 연구원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연구원은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원에 대해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구원의 근본적인 존립기반이자 목표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있고, 이는 농업정책을 통해 달성되는 만큼 정부의 농정 수립과 추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연구원의 경쟁력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미국의 레터링 박사가 정립하고 삼성그룹이 1998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훌륭한 일터’ 운동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터란, 첫째로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신뢰하고, 둘째로 구성원들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셋째로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일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맡은 일 최선을 다할때, 경쟁력 극대화

우리 연구원은 최근 연구환경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들이 한 울타리 안에 있어,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연구에 대해 언제든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연구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환경이 대학보다 우수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와 복지를 챙기겠습니다.

또한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은 지속적으로 손질할 것입니다. 복지카드제를 신설하여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을 위해 마음과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환경에서 상호신뢰하고 자부심을 갖고 연구원 생활을 재미있게 한다면, 우리 연구원이 훌륭한 일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연구원은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 연구원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농정 분야 최고의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설립 30주년에는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욱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숲이 우거질수록 산림정책 수요 늘어나

석 현 덕 연구위원

웰빙 바람에, 노는 토요일이 일반화되면서 등산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주말만 되면 전국의 산에 사람들이 떠밀려 다닌다. 스포츠나 여가에 대한 열기는 용품시장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등산용품에 한 층 전부를 할애한 백화점도 생겼고, 등산화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아주 좋은 일이다.

숲은 우거지고 산림이용은 늘어

숲도 많이 우거졌다. 아직까지 독일의 흑림처럼 흰칠한 나무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거진 숲을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잊혀지고 있다. 식목일에 큰 산불이 나고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기사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던 올해, 회갑이 된 식목일은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산이 숲으로 울창하고 이를 국민들이 잘 이용하니 산림정책이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오히려 산림정책에 대한 수요는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고 그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처럼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나무가 빨리 자라지 않는 온대지역이고, 땅값이 비싼 나라에서는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그래서 그런지 수십년간 투자한 사람 중에 키운 나무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 그걸 알고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산주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접적인 투자와 더불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조금은 좋아 졌지만 아직도 임업에 있어서 수익성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 산주들 중에 당장이라도 나무를 베어내고 싶은 사람들

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최근 전국의 땅값이 들쭉이니 자연히 땅 생각을 하는 산주들이 많아 졌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시키면 땅값이 많게는 몇십배 폭등하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산에 숲이 더욱 울창하면 좋겠다고 한다.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삶의 질을 더욱 따지게 되면서, 이러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 같다.

최근에는 특별히 도시 주변의 산림을 더욱 애지중지 여기는 것 같다. 경관 보전을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해,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도시주위산림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산주가 자기 산의 나무를 베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서로 판생각하고 있는 산주와 국민

산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산주와 국민의 시각차는 이처럼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각차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계속 경영을 하면 산림에 투자하는 산주는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할 것이다. 물론 다시 심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산에서 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정책이 필요하다.

즉 산주에게는 산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산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주가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기능을 생산하는 데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 산림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산림을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산림정책수요 늘어나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산주에게 공익기능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 방식의 지원정책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의 FLP(Forest Legacy Program)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근교에 개발수요가 많은 산림을 도시민의 요구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산주에게 개발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매년 얼마간의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로 산주는 산지를 개발하지 않는 대신, 매년 얼마간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은 여전히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누릴 수 있다. 산림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산주와 국민의 서로 다른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 멋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FLP는 미국 정부의 예상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이런 종류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직접지불제와 같은 정책은 증가하는 산림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부분일 수 있다. 산림경영에 있어서 새롭게 국제적인 규범이 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황사와 같은 산림으로 인한 국제적인 국가간의 문제, 새롭게 대두되는 산림경관의 중요성 등 수많은 이슈가 산림이 우거지는 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늘어나는 산림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회갑을 맞는 금년 식목일에 눈에 번쩍 뜨이는 산림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최근 FTA 추진 동향

허주녕 전문연구원

우리나라는 3월 현재 칠레, 싱가포르 등 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는 협상을 마치고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밖에 미국, ASEAN, 캐나다, 일본, 멕시코, 인도 등과는 정부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미국과의 FTA는 6월에 1차협상이 열릴 예정이다.

FTA 체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예비 연구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Mercosur (남미공동시장), 중국 등이 있다. 우리나라와 FTA 체결을 희망해 온 국가로는 이스라엘, 페루, 파나마, 뉴질랜드, 호주, 러시아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의 FTA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속도와 기타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러시아와는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연내 다섯 차례 회의 개최

한·미 FTA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1989년)에서 한국을 대상 국가로 언급한 이후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1년에 개최된 제14차 한·미 재계 회의에서 양측은 FTA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였고,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양국의 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2004년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후 한·미 양국은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와 6차례의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하여 양국간 FTA 협상 출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은 미국 의회의 검토기간(90일)이 필요한 관계로 협상 선

언 3개월 이후에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1차협상은 6월 5일에 개최될 것이며, 2월부터 5월까지의 양국 실무진 간의 비공식 협의와 협상준비가 있을 예정이다.

협상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한·미 FTA 비공식 사전준비회의가 올 3월 6일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협상일정, 협상분과 구성방안, 협정문 초안 교환 시기 등 협상절차와 범위 등이 논의되었다. 사전준비회의는 미국측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협상 대표단 가운데 농업협상 담당자들은 농림부와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여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한·미 FTA 공식협상은 6월, 7월, 9월, 10월, 12월 등 2006년내에 다섯 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빠르면 6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양허안 초안을 교환하고 검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연말에는 상품양허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상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한·ASEAN, 조정 작업 남아 있어

한·ASEAN FTA는 2005년 2월 공식협상이 개시된 이후 총 10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협상을 통해 개별 ASEAN 회원국들과 품목별 양허안 등 상품양허안과 서비스 및 투자 협상 등을 나누었다.

특히 품목별 양허안 협상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아세안의 공산품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였다. 상품 관세인하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관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조정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11차 협상은 4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캐나다, 4월 양허안 교환

한·캐나다 FTA는 APEC 정상회담에

서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에 합의한 이후, 2005년 7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2월까지 4차례 걸쳐 협상이 진행되었다.

4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등 분과별 협의를 진행하였고, 상품분야에서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품목 리스트를 교환하여 양측의 관심품목을 확인하였다. 5차 협상(4월)에서 양국간 정식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멕시코, 2차 협상 4월 개최

한국·멕시코는 공동연구와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2월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무역, 서비스, 경제협력 등 세부분과별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상품자유화와 관련하여 멕시코는 자국 산업계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포괄적인 상품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전략적 경제보완협정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양허안을 추구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며, 2차 협상은 4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인도, 3월 협상 추진방향 확정

한국과 인도는 공동연구 결과와 정상회담에 따라 2006년 3월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해 사전적인 공동작업반 협상을 개최하였다.

1차 공동작업반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 협력 등 7개 분야의 쟁점 및 분야별 양허수준 등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과 향후 성공적인 CEPA 협상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반 운영규칙과 세부적인 협상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2차 협상은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공동체지원농업(CSA)의 확산과 교훈

미국에서 최근 지역단위로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공동체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약간 시들해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비롯하여,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 이태리의 슬로우푸드(Slow Food) 운동 등과 유사성이 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매개로 생산자와 농촌주민, 도시주민 등이 연대하여 영세 생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농업을 진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CSA 운동에 대한 실태와 교훈을 살펴본다.

CSA는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공동체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고 있지만, 순수한 자연적 의미라기보다는 심정적인 요소도 가미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정한 가치관을 공유하여 창출한 공동체(Community)가 지원하는(Supported) 농업(Agriculture)이 CSA이며,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으로 정착되고 있다.

CSA는 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생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채널로서 출발하였다. 농민시장이나 농장직판장(farm stand) 등도 직판을 하지만 이것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CSA는 특정 지역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품목이나 생산량, 가격, 운송, 분배 방법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소비자는 사전에 그 대금을 지불한다. 또한 소비자는 농장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반면에 풍흉에 따른 리스크를 공유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라는 점에서 일정한 중간 조직을 필요로 한다. 농장의 생산계획이나 지속적 사업운영 등을 기획하는 소비자의 조직인 '코아 그룹'(core group)이 존재한다. 공급하는 농산물 1 단위를 1 구좌(share)라고 하며, 주 1회, 합계 30회 정도 농산물 세트를 택배로 배달한다. 1 구좌 대금은 400~500달러이다. 채소류의 유기생산이 중심이며, 종류는 30~40종 정도이다. 경영규모가 영세한 젊은 농가의 참여율이 높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확산

위스콘신주 남부 에반스빌시에 소재하는 'TIPI 프로듀스농장' (TIPI Produce Farm)의 사례를 보자. 이 농장은 부부 공동소유의 농지 26ha에 유기농업을 하고 있다. 1994년 유기농장인증을 받았으며, 시카고 시내 식당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7년 주내 유기농가 25명이 조직한 협동조합(Home Crown Wisconsin)에도 참가하고 있다. 부부 2명에 풀타임 고용 3명이 중심 노동력이며, 여름철에는 주 40시간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11명을 고용한다.

농민시장이나 식당에 판매하던 것을 중지하고 2004년부터 CSA를 시작하지 2년째이다. 현재 회원은 86명이며, 매년 5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27회 공급한다. 1 구좌 대금은 500달러이며, 반 구좌 300달러 코스도 있다. 농산물은 유기채소 40종이며, CSA 판매액은 3만 달러 정도이다. 3년 후까지 채소 식부 20ha를 추가하여 회원수를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CSA로 전환한 이유는 판매의 유리성 때문이다. CSA 판매 가격을 캘리포니아산과 비교하면, 관행에 비해 2배, 유기는 20~40%의 가격 프리미엄이 있다. CSA를 통하여 대량생산과 차별화하여 우위성을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아직은 소비자의 경영이나 작업에 대한 개입은 없고, 또 코아 그룹도 없다. 앞으로 회원수가 늘어나면 코아 그룹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안적 '지역유통' 시스템으로 정착

미국에서 CSA 운동이 확산된 배경을 살펴보자. 이 운동은 1980년 후반 독일이나 스위스의 경험을 참고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1990년 '유기식품생산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유기농업이 확대 보급되면서 CSA 운동이 확산되었다.

유기인증제도가 확립되면서 유기생산이 증가하고 유기식품 시장도 성장하였다. 그런데 대규모 기업적인 유기농장이 출현한 다든가, 국제화에 의한 유기제품 유통이 광역화하는 등 유기농업자들이 바라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유기농산물의 거대화·광역화를 거부하는 생산자와 지역주민들이 '지역유통'이라는 하나의 대안적 유통시스템으로 선택한 것이 CSA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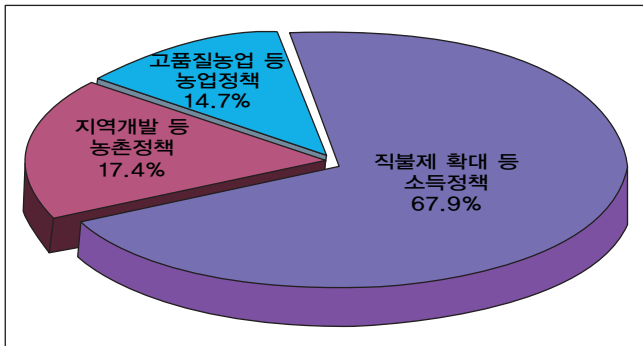
현재 1,000개 이상의 CSA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그 효과나 확산 속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영세경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CSA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동체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예상되는 농업문제에 대하여 생산자, 소비자, 자재업체, 식품가공업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CSA는 지역 농산물이나 투입재의 산지직거래형 생산·판매에 의한 고부가가치화와 이에 의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이고, 도시 및 근교지역의 농지·농촌경관·지역환경 보전 등과 같은 다원적 효과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CSA 창시자 로빈 반 앤(R. Van En)은 CSA 역할에 대해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을 넘어서 '농업이 지원하는 공동체' (ASC)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김태곤 연구위원>

농업인 67.9% “소득안정대책 최우선 추진을”

농업인들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와 투융자사업에 ‘직접지불제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아 정부가 ‘소득안정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연말 우리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인 전국의 농업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회수된 680건의 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향후 중점추진 되기를 바라는 농정분야〉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서 직접지불제 확대 등의 ‘소득정책’을 최우선으로(67.9%) 꼽았으며, 다음으로 지역개발 등 ‘농촌정책’(17.4%), 고품질 농업육성 등 ‘농업정책’(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쌀 시판 우려”...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 마련을”

쌀 시장 10년간 개방 유예와 수입쌀 시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해 농업인 과반수 가까이(47.6%)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수입쌀 시판’(52.9%)을 꼽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63.0%가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와 관련해 2005년 역점 추진한 쌀산업정책 중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 등 쌀농가 소득안정 대책’(3.2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농업인 59.7%는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공공비축제 매입가격 적용방식은 ‘전국 동일가격 적용’(60.2%)을 ‘지역별 가격 적용’(33.7%)보다 뚜렷이 선호하였다.

“다양한 직불제 실시”에 투융자사업 확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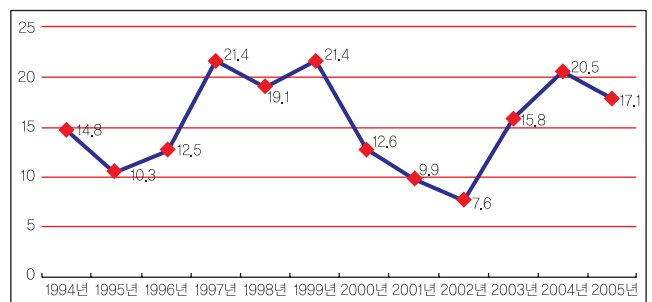
119조원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 20%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38.5%는 ‘잘못 추진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6%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투융자사업을 확대하길 원하는 분야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업인연금 지원 등 부담경감’,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지원’ 등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식품안전관리 농림부로 통합해야”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식품안전관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10명중 6명(66.6%)이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농림부 명칭은 응답자 절반 가까이(48.1%)가 ‘농업·생명산업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조사해 온 농업인 의식변화와 관련한 조사결과,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10명중 1명(9.5%)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17.1%로 전년(20.5%)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UR출범 이후 농사만족도 변화 추이〉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은 수매제폐지 등의 영향으로 ‘추곡수매’가 26.9%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했으며, 2003년부터 급격히 관심이 증가한 ‘농산물 수입개방’도 25%대를 유지하였다.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은 ‘농촌인력 부족’(21.6%)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21.4%),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13.0%), ‘농산물 수입개방’(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원 부연구위원, 박해진 연구조원>

KREI 세미나,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형의 이해' 발표



'CGE 모형의 이해'란 주제로 KREI 세미나를 3월 13일 가졌다.

우리 연구원은 3월 13일 중회의실에서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이 '연산가능일반균형(CGЕ) 모형의 이해'란 제목으로 발표한 뒤 토론하는 KREI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 선임연구위원은 "CGE 모형은 경제전반의 모든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하여 연산을 가능하게 설계한 것으로 부분균형과는 차이가 있으며, 비확률적 모형이란 점이 확률적 수리모형과 다른 점이라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농업 부문 중심 일반균형 모형의 예를 생산 부문, 민간소비 부문, 정부 부문, 저축과 투자, 국제수지 부문, 생산물시장, 생산요소시장 등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GE 모형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발생하는 기간, 동태성 또는 정태성, 사용된 탄성치 등이 논의 되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발표 말미에 "CGE 모형에 관한 의문이 풀린 점도 있으나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의문이 발생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참고문헌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연구진 동정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3월 22일 기획예산처에서 '쌀 정책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제를 했다.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3월 31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 농업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농업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북

환경변화와 농협혁신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석현덕 연구위원은 3월 13일과 14일 일본에서 열린 '동북아시아 아카데미포럼 2006 in 교토'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허덕 연구위원은 3월 30일 안성에서 축산인을 대상으로 '축산물 무역체계의 변화'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김홍상 연구위원은 3월 17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하구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 부문 지원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3월 10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읍면농업인상담소장을 대상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실천과 발전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3월 1일과 2일 양일간 일본 토야마대학에서 열린 동아시아 신자유주의와 농업정책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식량정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송미령 연구위원은 3월 16일 도시설계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도·농복합도시개발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이라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3월 23일은 농림부 주최로 열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워크숍에서 '도시민 농어촌 유지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권오복 연구위원은 3월 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3월

14일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06년도 4-H 임원 지도력 배양교육에서 '한-미 FTA의 농업 부문 영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박문호 부연구위원은 3월 30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06 녹차 분야 우수기술발표회에서 '녹차수출시장의 진출 전략과 수출상품 개발'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3월 26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김영생 전문연구원은 3월 31일 aT센터에서 열린 2006한국농업최고경영자대회 토론회에서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 연구원 인사

△(복직) 임송수 연구위원(국제농업연구센터), 정은미 전문연구위원(농산업경제연구센터)

△(신규임용) 연구원 최국현, 김성일 / 연구조원 한경숙, 문영미(농림기술관리센터)

△(전보) 전문연구원 조규대(농산업경제연구센터)

△(팀장임명) 연구위원 임송수(WTO팀), 1급관리원 전일송(시설관리팀)

세계농촌사회학회장 내원



세계농촌사회학회(IRSA) 알렉산드로 보나노 회장과 2008년도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요시오 가와무라 프로그램위원장이 3월 13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최정섭 원장과 오내원 기획조정실장, 정기환 연구위원, 박대식 연구위원 등을 만나 우리 연구원과 세계농촌사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8년 세계농촌사회학대회' 업무추진과 IRSA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